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월 6일(금) 조간(4.5.12:00 이후 보도)

배포일	2018. 4. 5. / (총 37매)	담당부서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김혜선	전화	02-6020-3310
담당	서종원		02-6020-3313

“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정보, 쉽게 찾아보세요!”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발간 -

- 1인 가구는 539만8000 가구(16기준)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27.9%) 차지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16년 인구 1000명 당 2.15건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노인은 전체 노인의 7.0% 수준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15년 37.7%, 34.8% → '16년 39.0%, 36.0%로 각각 1.3%p, 1.2%p 증가 ”
- 건강보험보장률은 '15년 기준 63.4% 수준
- '13년 기준 공공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 평균(21.1%)의 44% 수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사회 사회보장 수준과 정책추진 결과를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가족, 아동, 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 산출 사회보장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3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계집이다.
- *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 11개 분야 262개 지표로 구성, '16년 기준 '17년 발표 통계

- 통계집에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 통계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들어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사회보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는 이해도를 더욱 높인 인포그래픽 자료가 포함되어,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이고 시의성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책자로 발간되나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sc.go.kr>)에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이달 말부터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각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 소관부처 별 통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전자책(e-book)도 볼 수 있다.
 - *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국민의 필요를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pdf 파일 별첨) 주요 내용

2. 2017년 사회보장통계 인포그래픽스
3. 2017년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현황

붙임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주요 내용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주요 지표 (요약)

- ① (가족)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539만8000가구('16.기준)로 증가하여 2016년 전체 가구(1936만8000가구)중 **가장 큰 비중(27.9%)**을 차지함
-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조혼인율은 5.5건으로** 2015년 5.9건보다도 0.4건 감소하여 공식 통계가 작성(1970)된 이후 최저치 기록함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약 10배 이상 성별 격차 벌어짐
-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법 개정 및 국민들의 인식개선으로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인구 1000명 당 2.15건으로 크게 증가
-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14.3%에 불과 하나 향후 아동수당 도입으로 증가 예상
 -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약 48만7000여명('16.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7.0%에 해당됨.
 -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6년에 다시 증가하고 실업률은 다소 감소
 - 장애인 연금 수급률은 68.4%'16.기준으로 '10년 대비 23.1%p 증가하였음
- ③ (보육·교육) 2015년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 및 이용률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4.8%p 증가.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증가 추세 둔화
-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4명, 중학교 27.4명, 고등학교 29.3명('16.기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0.2명, 1.5명, 0.7명 감소한 수치임

- ④ (근로)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9.8%'(17.기준)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고('16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⑤ (소득보장 · 빈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163만1000명('16.기준), 수급률 3.2%로, 2014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크게 증가
-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처분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4년~2015년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다시 증가
- ⑥ (건강) 성인(19세 이상)의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은 '15년 대비 각각 1.3%p, 0.5%p 다소 증가하였고, 걷기실천율은 1.5%p 감소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15.기준)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0.2%p 확대된 수치임
- ⑦ (주거)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6.3%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6%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
-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총 80만3970가구('16기준)로 전년도에 비해 약 4000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일반가구 수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은 4.20%임
- ⑧ (에너지)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8.0%'(16기준)로, 2011년 이후 감소 추세
- 2015년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원규모가 다소 증가하여 저소득층 약 52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487억 원의 연료비를 지원

- ⑨ (환경) 인구 1만명당 환경성질환자 수는 1,983명('16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07명 증가함(알레르기성 비염 1,430명, 아토피 피부염 201명, 천식 352명)
- 주요도시 연도별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최근 더욱 증가
- ⑩ (문화) 인구 100만 명 당 문화시설의 수는 49.4개('16기준)로 매년 증가하며, 생활체육참여율은 59.5%'('16기준)로 전년도에 비해 3.5%p 증가함.
- ⑪ (사회재정)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은 2017년 129조5000 억원로 전체 중 32.3%를 차지하며, 2010년~2017년 연평균 증가율 6.9%는 국가 총지출 증가율(4.6%)을 상회함.
-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GDP 대비 9.3%(20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OECD 전체 평균(GDP 대비 21.1%)의 44%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 5.7%로 OECD 평균 증가율(약 1.2%)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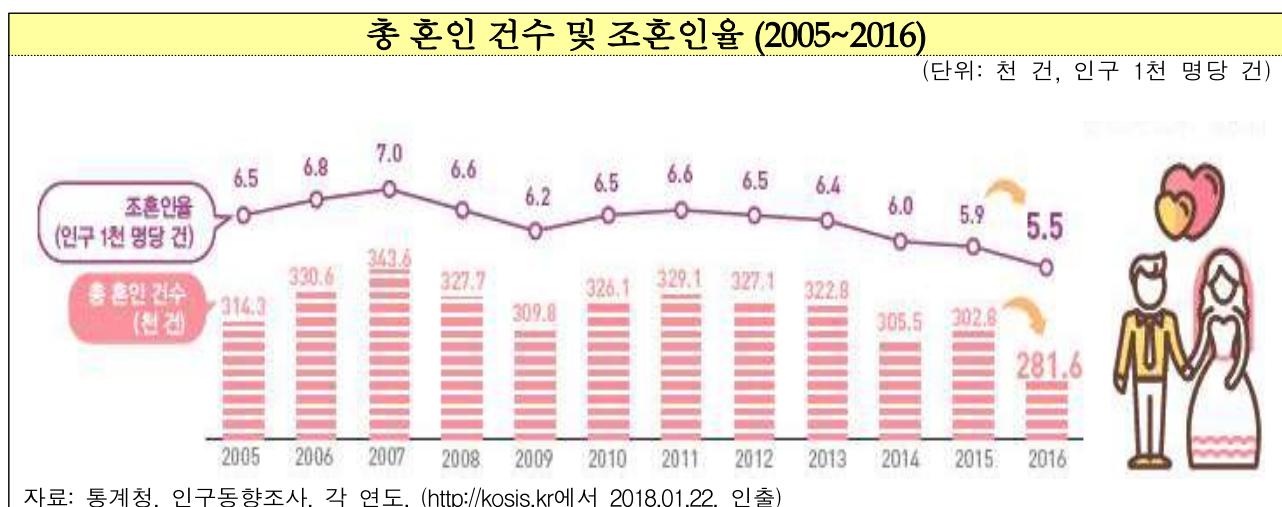
① 가족

- (1인 가구*) 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6만1000가구였던 1인가구는 2016년 539만8000가구(27.9%)로 약 8배 정도 증가함
 - 만혼 및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1인가구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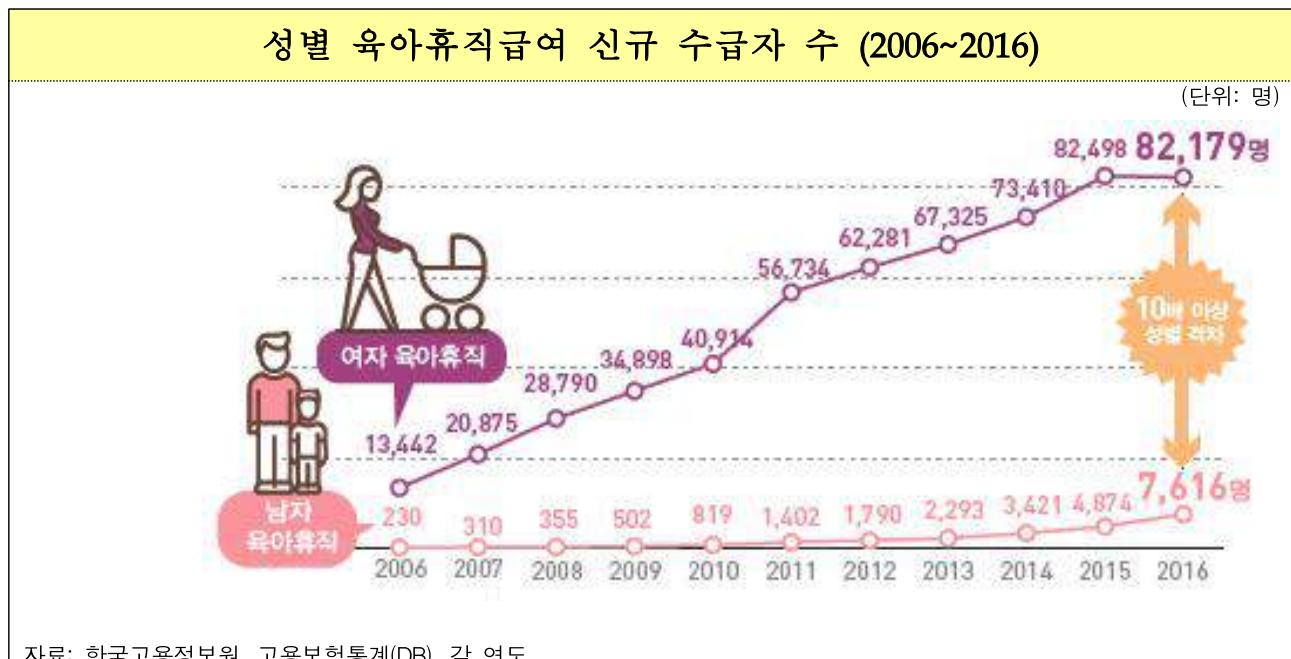
* 1인가구란 일반가구 중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



- (조혼인율)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조혼인율은 5.5건으로 2015년 5.9건보다도 0.4건 감소하여 공식통계가 작성(1970)된 이후 최저치 기록함
 - 이는 최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혼과 비혼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 육아휴직자 수의 10배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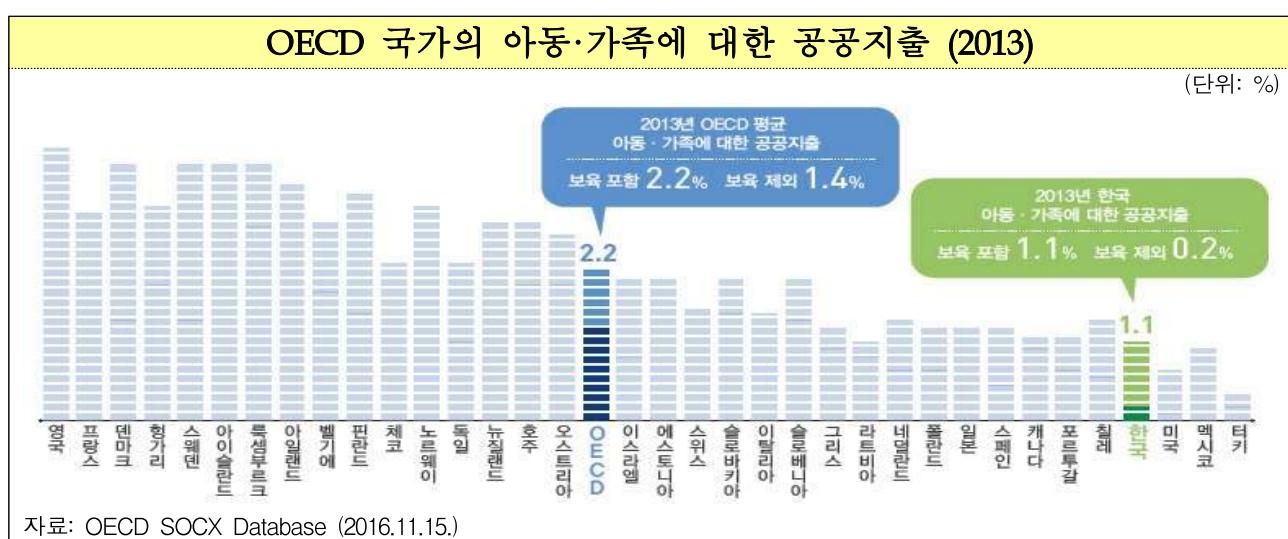
② 아동 · 노인 · 장애인

<아동>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은 법 개정 및 국민들의 인식개선으로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아동인구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인구 1000명 당 2.15건으로 전년대비 급격한 증가



- (아동복지지출 비중) 아동·가족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50%이나 보육을 제외할 경우 OECD 평균의 14.3%에 불과



<노인>

-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1년 이후 연평균 8.4%씩 증가 하여 2016년 약 48만 7000여 명에 이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7.0%에 해당
- 노인 인구의 급속한 팽창 속에서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의 확대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발전적인 결과이며, 치매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장기요양 보호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장애인>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35만161명이며, 수급률은 68.4%로 나타남. 이는 2010년 대비 약 10만6000명 증가한 수치이며, 수급률 역시 2010년 대비 23.1%p 증가하였음.
- 특히 차상위초과 수급자 수가 14만2769명('16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약 10만3000명 증가하여 수급률 제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장애인연금의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2010~2016)

(단위: %, 명)

연도	수급률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2010	45.3	244,319	145,495	56,079	40,034	2,711
2011	55.6	293,122	139,299	61,690	81,983	10,150
2012	59.0	305,913	134,322	55,824	88,070	27,697
2013	59.7	305,394	131,668	52,663	92,592	28,471
2014	64.5	328,414	130,428	51,512	118,157	28,317
2015	67.3	342,444	134,489	46,306	133,431	28,218
2016	68.4	350,161	134,432	45,085	142,769	27,875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각 연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6만6534명('16.12), 이용액은 739억5600만원('16.12)으로 나타남.
- 전년 동월 대비 이용자 수 약 9.8%, 이용액 약 11.7%가 증가한 수치로, 매년 꾸준히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소득보장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12월 말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이용자 수	53,952	60,614	66,534
이용액	56,552,453	66,203,438	73,955,751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각 연도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6년에 다시 증가하고 실업률은 다소 감소

장애인 경제활동(2014~2016)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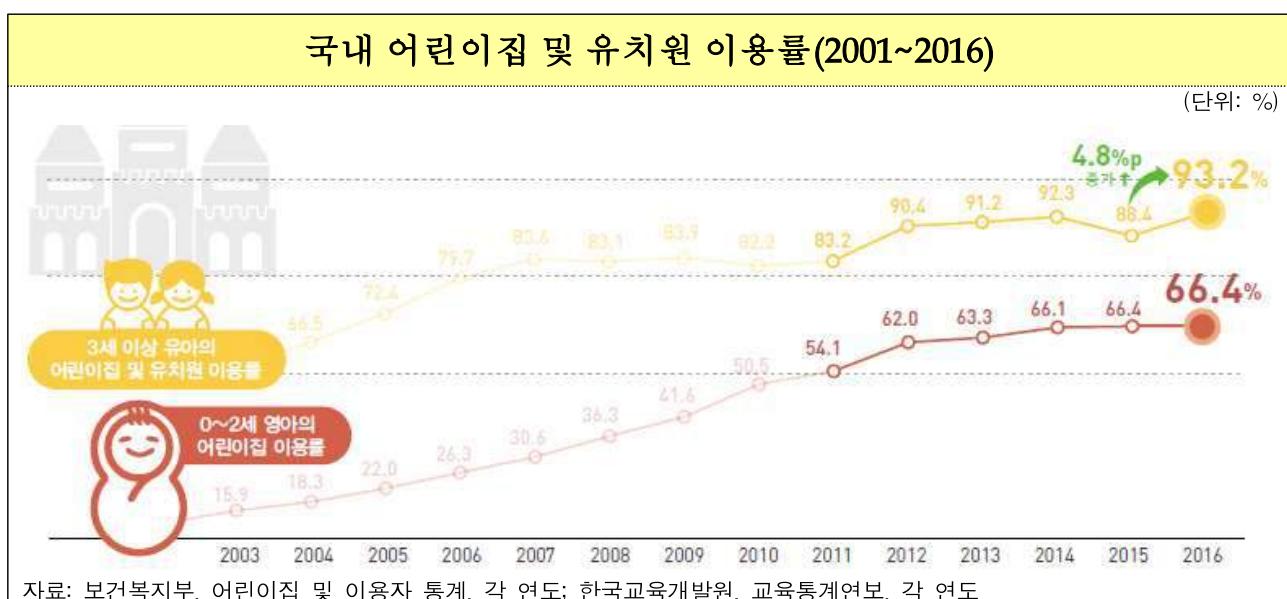
3 보육 및 교육

<보육>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01년 이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해당연령(0~2세 및 3~5세)의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유아의 백분율을 의미함.

- 3세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에 들어 다소 감소하여 88.4%로 나타났으나 2016년 다시 4.8%p 증가.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증가 추세 둔화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의 급속한 증가는 2005년 이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에 기인함. 특히 무상보육 정책의 영향이 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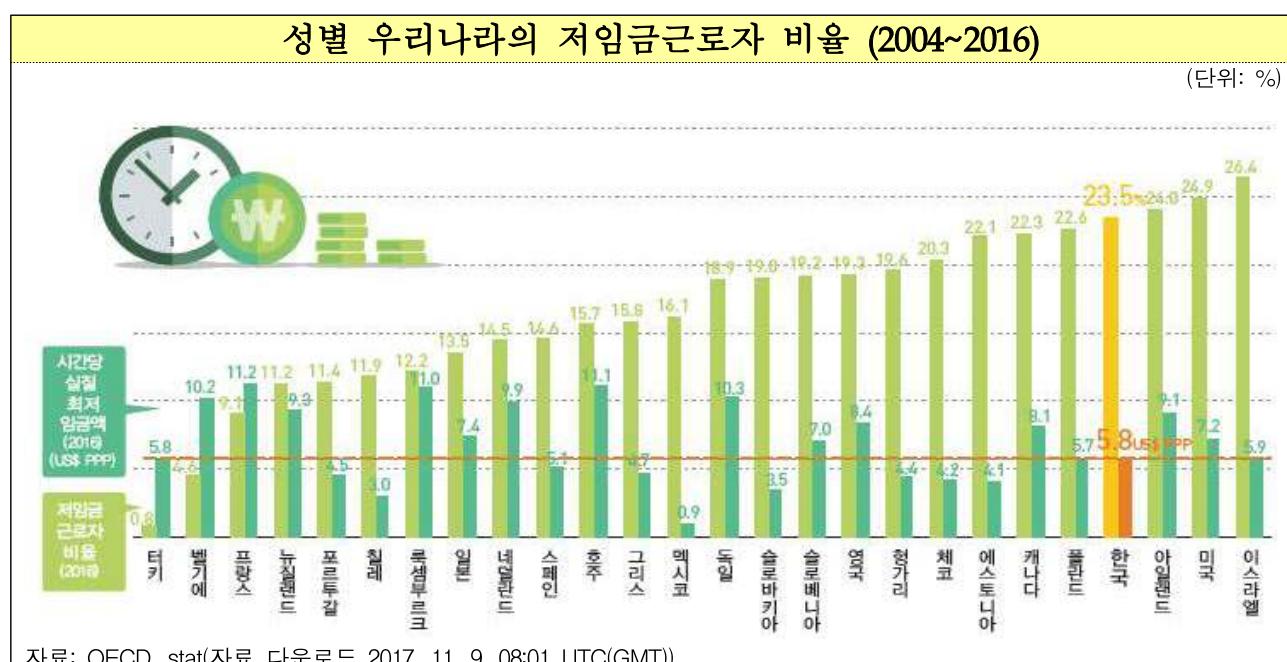
- (학급당 학생수)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초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에는 30명대, 2010년 이후 25명대로 감소하여 2016년 현재 22.4명으로 나타남.
 -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가 더디게 진행되어, 2005년에 와서야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5명대 전후를 나타냄. 2016년 현재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7.4명, 고등학교의 경우 약 29.3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일정규모의 학급과 교사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교육의 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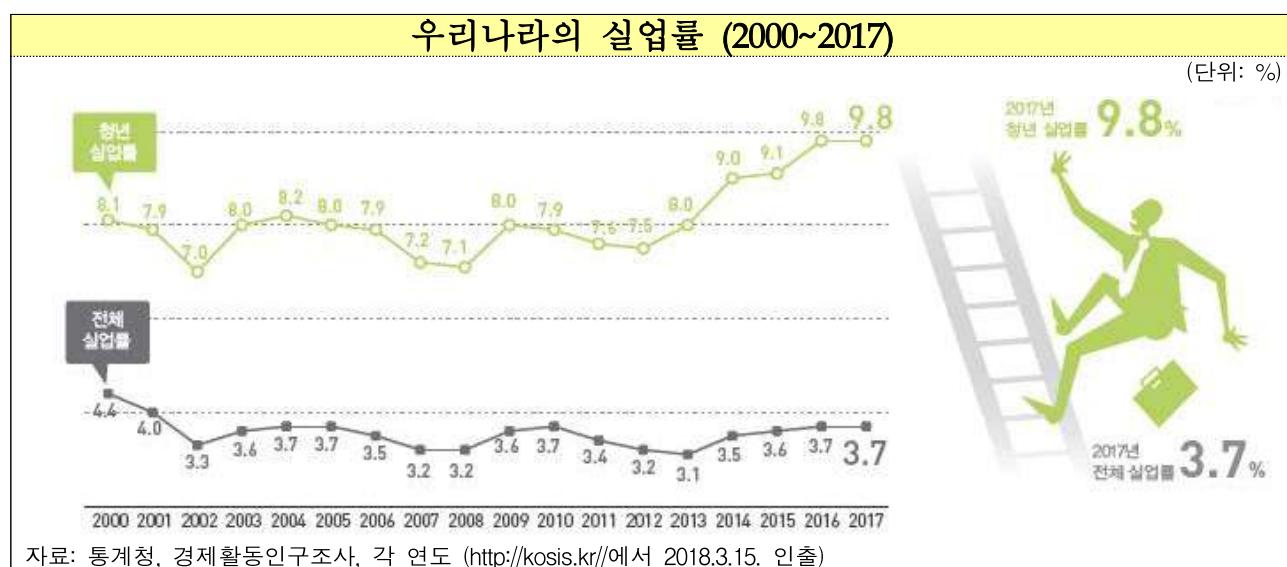
4 근로

- (최저임금 수준 및 저임금 근로자 비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고(2016년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이스라엘, 미국,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

*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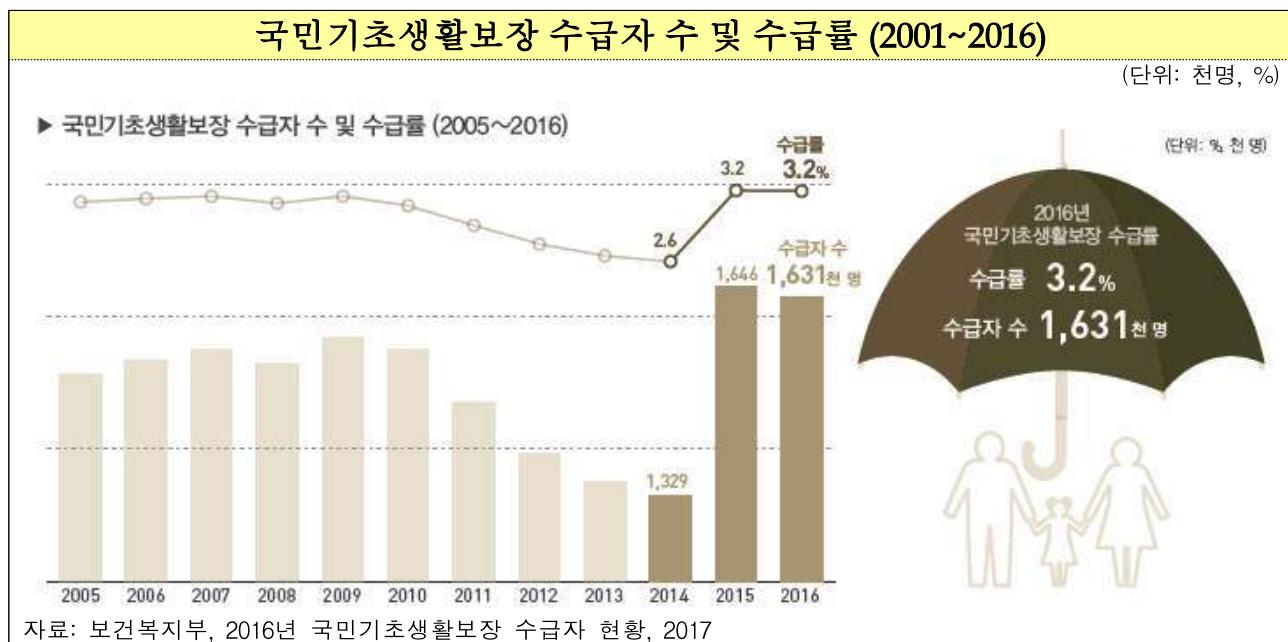


- (실업률) 전체연령 실업률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7년 9.8%까지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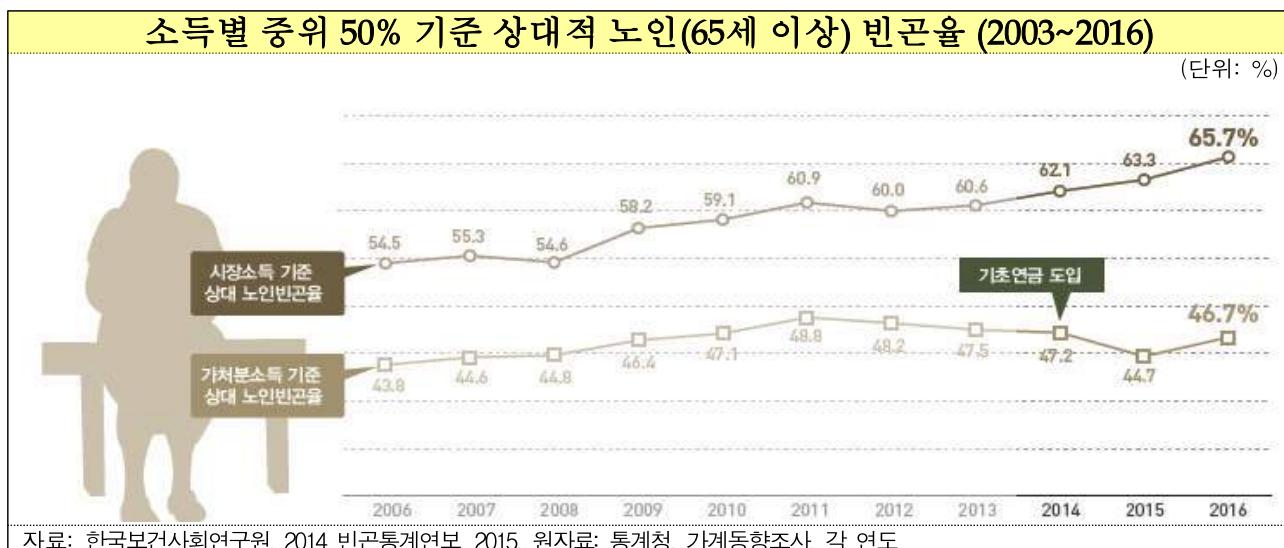
5 소득보장과 빈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가 2014년에 비해 대폭 증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후 2016년 수급률이 2014년보다 약 0.6%p 높은 3.2%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수도 163만1000명에 달함.
- 수급자 수의 증가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한 것으로, 특히 교육 급여의 수급기준이 중위소득의 50%으로 책정되고,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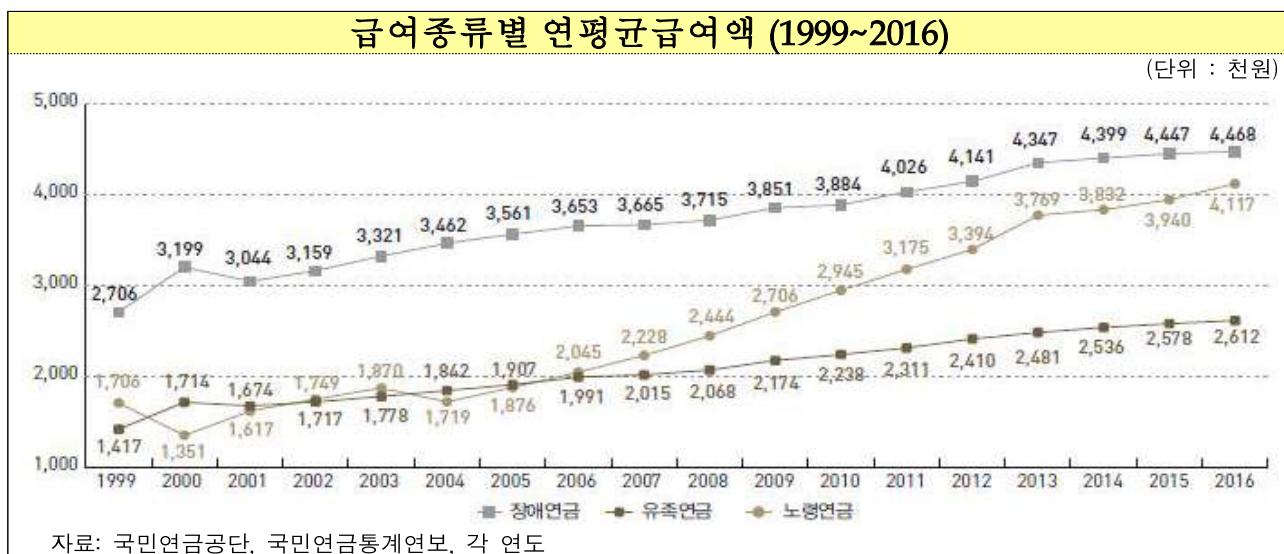
- (상대적 노인 빈곤율)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기초연금으로의 확대 개편, 공적연금 수급률 상승 등으로 인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이임.
- 시장소득 기준의 경우(1인가구 포함) 2016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2.4%p 증가한 65.7%로 나타나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 가처분소득 기준의 경우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48.8%에까지 이른 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기초연금 확대로 대폭 감소한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전년도 보다 2.0%p 다시 증가한 4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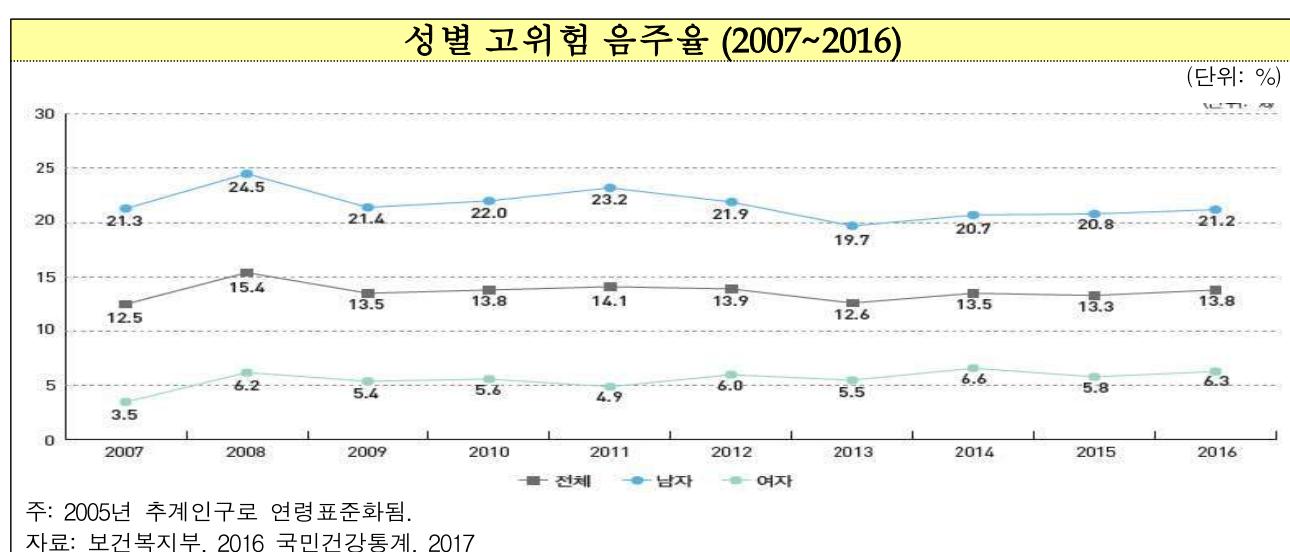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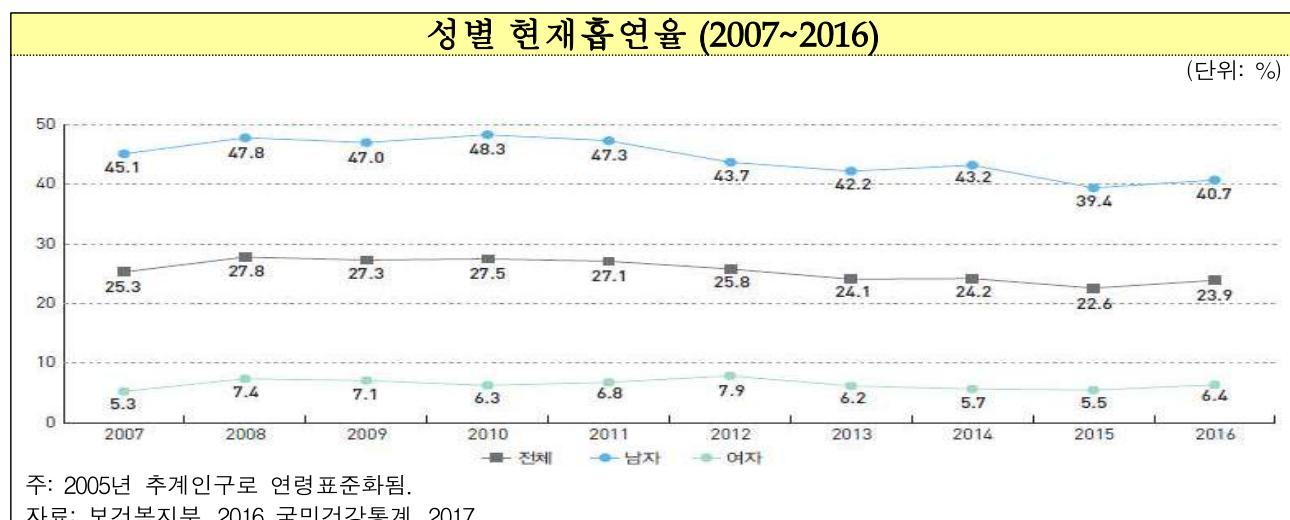
- (국민연금 급여지급) 2016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약 341만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수급자(일시금 제외)의 약 82%에 해당함.

- 노령연금의 연평균 급여액*은 약 412만원으로 유족연금보다는 크지만 장애연금보다 적은 수준이나,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 노령연금 연평균 급여액은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수준을 의미



6 건강

-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겉기실천율) 현재 흡연율은 2010년 이후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3.9%로 2015년 22.6%보다 1.3%p 증가함 (남자 39.4% → 40.7%, 여자 5.5% → 6.4%). 고위험음주율도 2015년에 비해 0.5%p 증가한 13.8%로 나타남(남자 20.8%→21.2%, 여자 5.8%→6.3%).
- 2000년대 후반에 45%를 웃돌던 겉기실천율은 2016년 39.6%로 감소하였음.
- 과음하는 습관은 소화기계, 심혈관기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치매, 뇌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음주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앞으로도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됨.



건기실천율 (2007~2016)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5.7	46.9	46.1	41.1	38.0	39.4	38.0	41.7	41.2	39.6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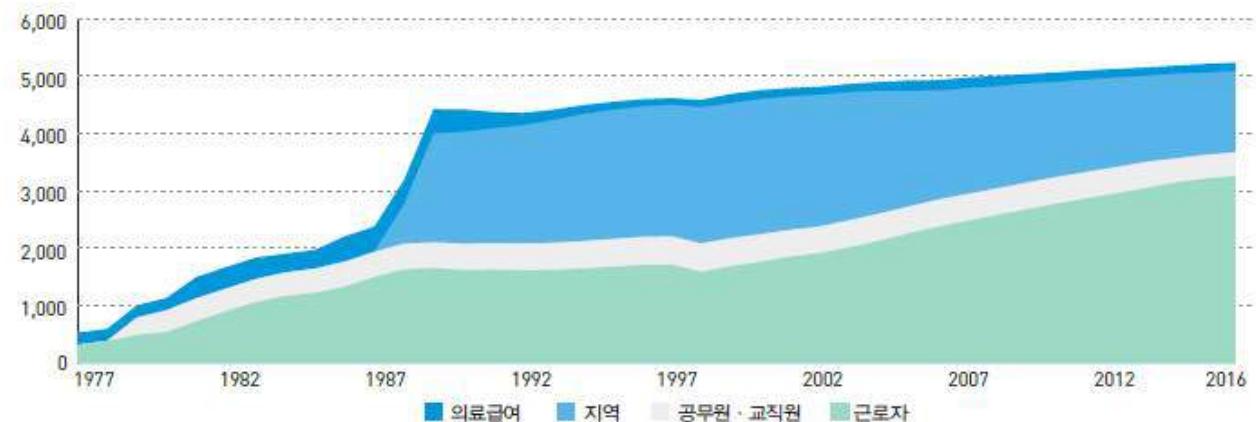
- (의료보장 적용 인구와 건강보험보장률)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 (97.1%)과 의료급여제도(2.9%)에 의해서 전 국민 모두 보장을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 수준에 불과함.

*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급여로 처리되는 비중(현금지급 포함)

- 의료 접근성 확보의 3대 목표는 보장 인구의 확대, 급여서비스 영역의 확대, 환자 지불 금액의 감소임.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장 인구의 확대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급여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의료보장 적용인구(1977~2016)

(단위: 만 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건강보험 보장률(2006~2015)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4.5	65.0	62.6	65.0	63.6	63.0	62.5	62.0	63.2	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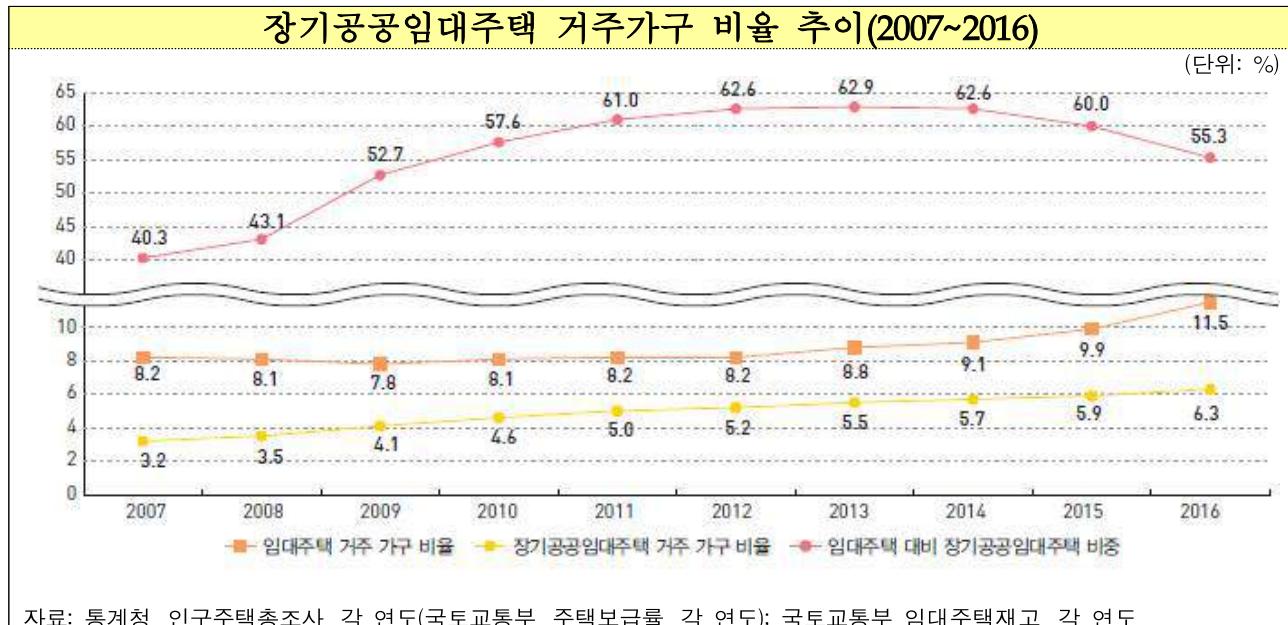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7 주거

-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6.3%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해당 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각 연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 각 연도

-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개별 급여로 분리, 주거급여 지원 가구비율 2016년 4.2%까지 증가함.

* 주거급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정책임.

주거급여 지원 가구 비율 (2010~2016)

(단위: 가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가구 수(A, 친 가구)	17,339	17,719	18,057	18,408	18,773	19,111	19,368
주거급여 지원가구 (가구)	합계(B=C+D)	815,789	771,716	726,255	717,744	692,874	799,864
	현금급여(C)	797,478	755,092	711,650	703,579	678,997	-
	현물급여(D)	18,311	16,624	14,605	14,165	13,877	-
	임차 급여(C)	-	-	-	-	721,570	727,042
	수선유지 급여(D)	-	-	-	-	78,294 (9,792)	76,928 (21,207)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B/A)	4.70	4.36	4.02	3.90	3.69	4.19	4.2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 11. 28. 인출);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8 에너지

-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0분위 가구의 소득대비 연료비 비율은 1%대에 불과한 반면, 1분위 가구는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최대 10%대로 나타남.
-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2016년에 8.0%까지 하락하였음.
- 그러나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많은 1분기에는 2015년 14.8%, 2016년 13.4%로 여전히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높은 수준을 유지

*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 연료비/소득 비율을 의미하며, 가구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얼마나 과중한가를 나타냄.



□ (에너지복지 사업 지원가구)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구입 여건 악화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지원 정책이 강화됨.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크게 에너지 이용효율개선 및 보급사업, 가격할인, 연료비지원으로 구분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됨. 2015년 새롭게 도입된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예산 규모는 2016년에 52만4000명, 487억 원으로 증가

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 (2011~2016)						
(단위: 억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1	2012	2013	2014
효율 개선 및 보급 사업	전력효율향상 (고효율조명보 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116 (25,625)	146 (30,468)	246 (46,269)	356 (76,80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주택창호·단열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기구당 150만원한도)	195 (21,428)	296 (29,628)	411 (36,508)	671 (40,000)
	국민임대 아파트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정부 80%)	94 (20,528)	117 (34,867)	53 (19,321)	4 (2,439)
	복지시설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부 80%)	99 (186)	111 (170)	43 (111)	39 (219)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24시간 응급조치, 전기 재해 취약설비 무상 수리	22 (65,611)	24 (68,383)	25 (70,313)	25 (74,27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상 교체	159 (85,069)	148 (91,343)	132 (79,523)	132 (72,620)
가격 할인 사업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장 애인/상이자/유공자 (16천원/월, 여름철 2만원) 등*	2,720 (2,240,548)	2,456 (2,248,467)	2,533 (2,274,847)	2,617 (2,327,574)
	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유공자,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 12,400원, 주거급여, 차상위 월평균 6,200원 교육급여, 차상위학인서 월평균 3,100원	484 (606,305)	521 (643,445)	684 (767,640)	936 (865,167)
	열요금 감면	장기임대 등 기본요금 전액 감면, 생계및의료(10천원/월) 차상위(7천원/월) 장애인(5천원/월)	42 (133,286)	48 (137,835)	52 (148,212)	56 (156,969)
연료 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난방 연료지원	난방용 등유 200L 상당 (기구당 310천원)	-	81 (18,000)	81 (18,000)	60 (18,000)
	저소득층 연탄보조	연탄쿠폰 (기구당 169천원)	151 (89,172)	141 (83,288)	141 (83,277)	141 (83,300)
	에너지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 구입가능한 전자바우처	-	-	-	452 (77,413)
총계			4,080 (3,259,934)	3,766 (3,393,493)	4,415 (3,544,312)	4,678 (3,642,820)
						5,454 (4,195,207)
						5,508 (4,492,632)

주 : 괄호 안은 지원가구의 수를 의미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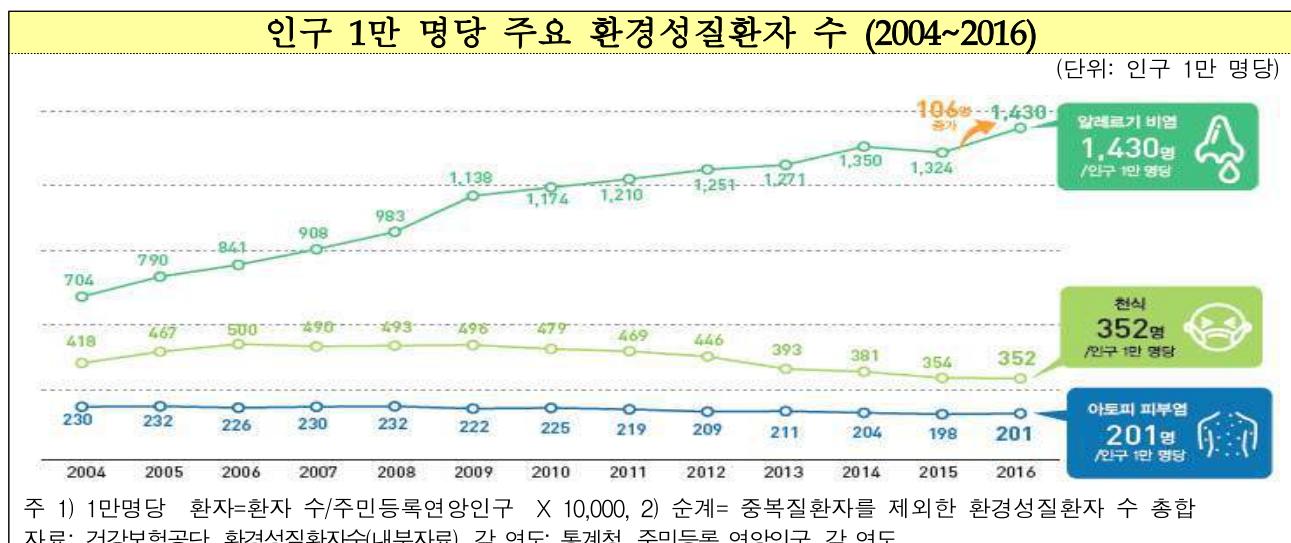


9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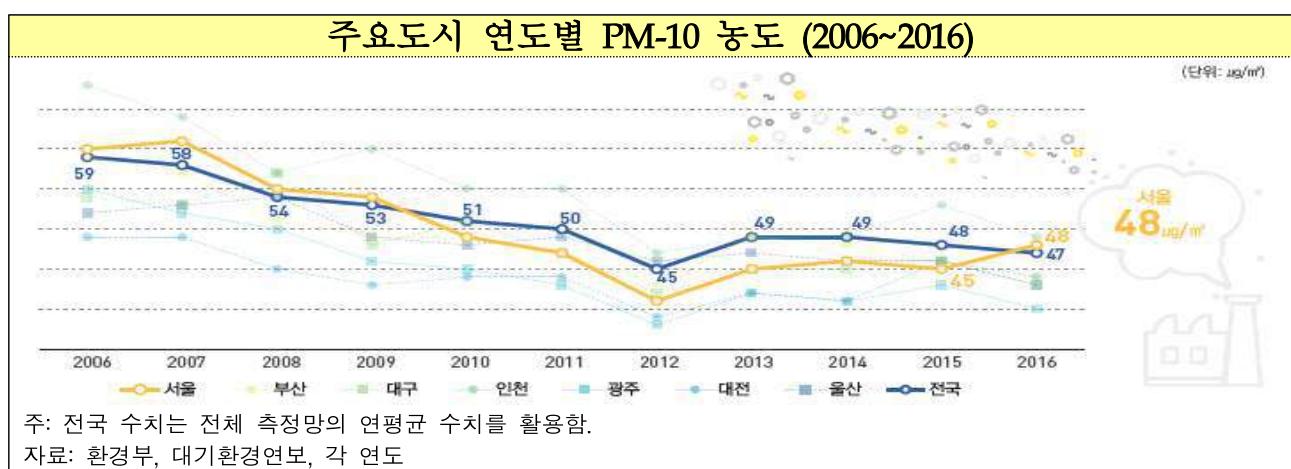
□ (환경성질환자수*) 2016년 말 현재 건강보험통계에서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전체 970만 명으로,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69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천식이 172만 명, 아토피 피부염이 98만 명 정도임.

- 인구 1만명당 환경성질환자 수는 1,983명으로, 이중 알레르기성 비염은 1,430명, 아토피 피부염은 201명, 천식은 352명임(세부 항목에서는 중복인원 발생).

* 만성질환과 관련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만성질환 중 환경과의 관련성이 높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환자의 수를 통해 환경상태를 간접적으로 유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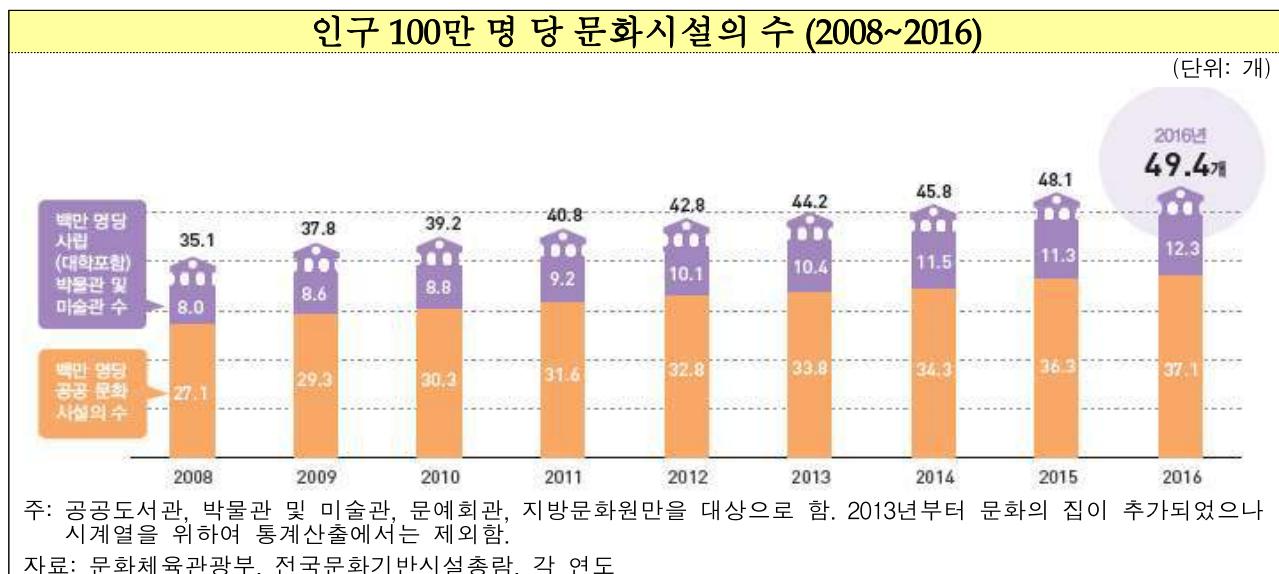
□ (주요 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주요도시 연도별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최근 더욱 증가



10 문화

□ (인구 100만 명 당 문화시설의 수*) 2016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의 수는 2008년 35.1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49.4개에 이른.

*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이 해당되며, 인구 대비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농어촌 산간지역 등 소외지역 문화 인프라 제고와 같은 사회보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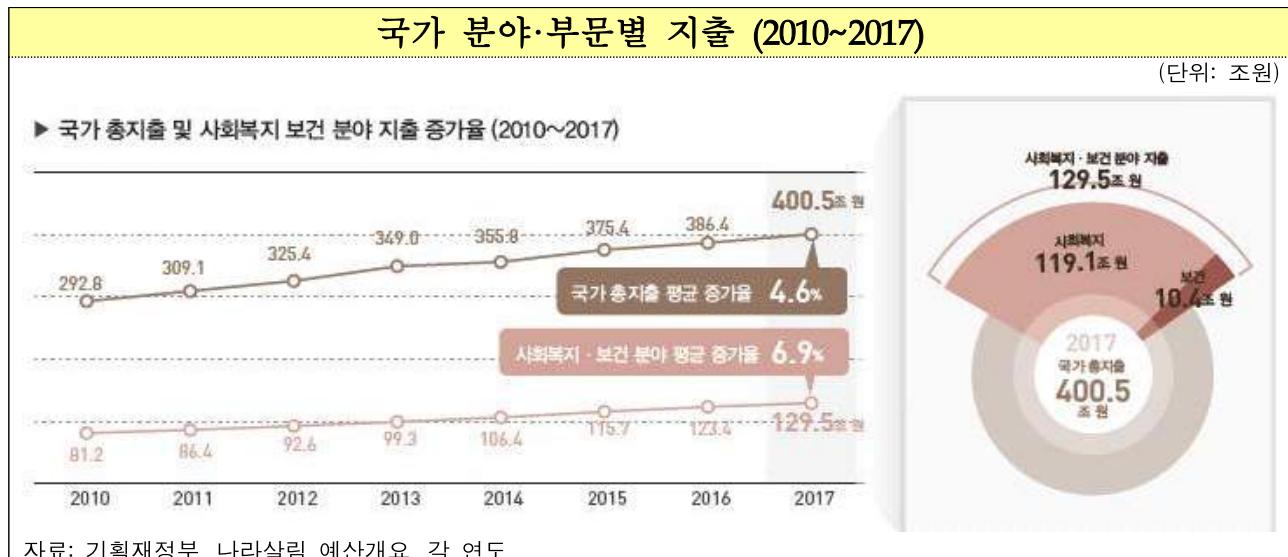
□ (생활체육 참여율) 2016년도에 생활체육 참여율은 59.5%로 2015년 56.0%에 비해 3.5%p 증가

○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35.9%)로 나타났으며, 등산(17.2%), 보디빌딩(14.7%)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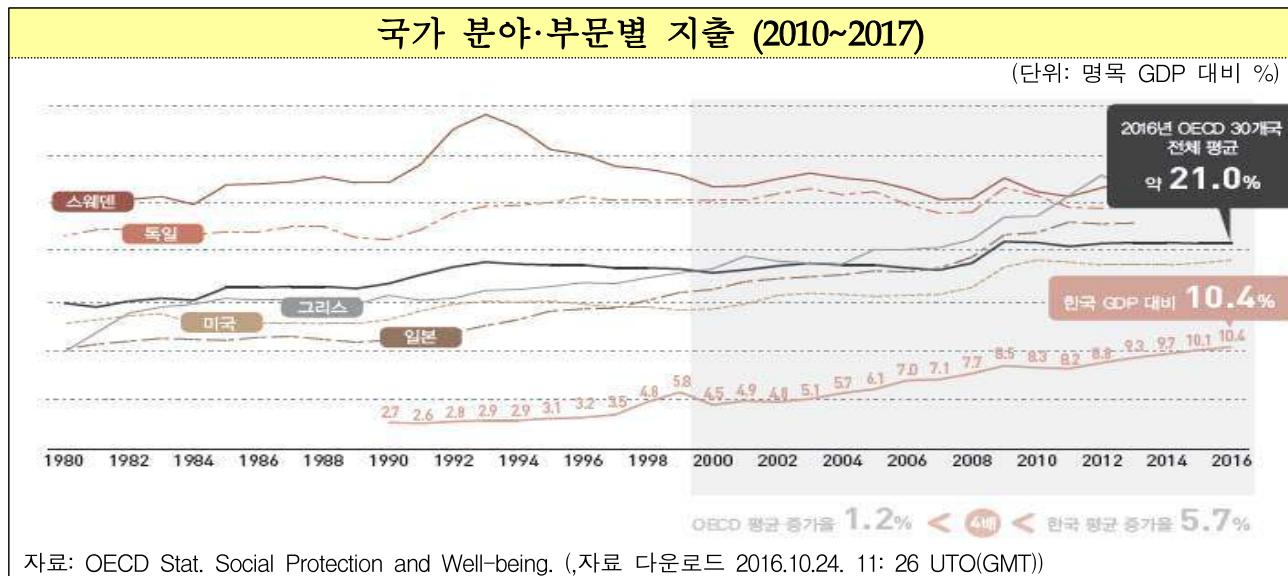


11 사회재정

-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2017년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29조5000억원로 국가 총지출의 32.3%에 달하며, 2010년~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6.9%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4.6%)을 상회함.



- (OECD SOCI<사회복지지출> 기준 공공사회지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GDP 대비 9.3%(20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OECD 전체 평균(GDP 대비 21.1%)의 44%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평균증가율5.7%로OECD 평균증가율(약1.2%)에 비해4배 이상 빠르게 증가



불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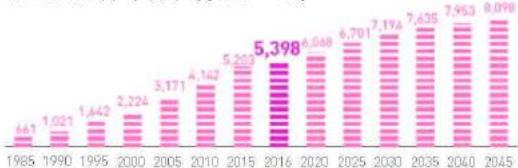
2017년 사회보장통계 인포그래픽스

가족

● 1인가구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6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연도별 1인가구 수 및 추계 (1985~2045)



주: 1) 1986~2016년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2000~2015년은 정례기준총조사에서 발표된 1인 가구 추계임.

한 2010년까지는 전통적 협장조사 방식의 집계결과이며, 2015년도와 2016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 선별조사 방식의 집계결과임

자료: 통계청, 민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asis.kr>에서 2017. 11. 27. 인출, 통계청, 질의기구주체: 2015~2045년, 2017 (<http://koasis.kr>)

[View Details](#) | [Edit](#) | [Delete](#)



● 흔인율 ●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2016년 조혼인율은 5.5건으로 2015년 5.9건보다도 0.4건 감소하여 공식 통계가 작성(1970년)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2005~201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2018.01.22. 확보.

—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

육아휴직 이용에 있어
성별 격차는 매우 큼.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
육아휴직자 수의 10배 이상

▶ 성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수 (2006~2016)



지도: 한국교육정보원 교육부 학동계 대회 각 연도



INFOGRAPHIC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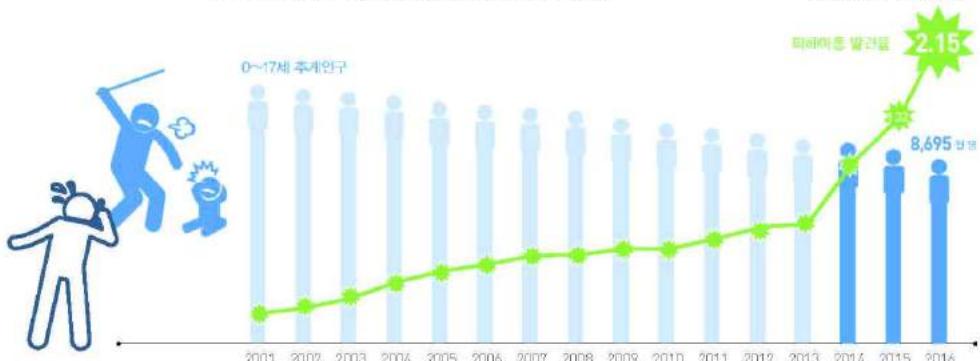
아동·노인·장애인

▶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

법 개정 및 국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2014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은 크게 증가

▶ 추계 아동 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2001~2016)

(단위: 아동인구 전 평균, 천명)



주: 통계청에서 접수한 2016년 '연장범(시드)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 아동복지지출 비중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14.3%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아동수당 도입으로 증가 예상

▶ OECD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2013)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OCX Database, [2016. 11. 15]

아동·노인·장애인

INFOGRAPHICS
2017

▶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최근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과 치매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장기요양 보호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2011~2016)



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지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자(중복자 사망자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나부자료), 2016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6년에 다시 증가하고 실업률은 다소 감소

▶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2014~2016)



▶ 장애인 고용률 (2014~2016)



▶ 장애인 실업률 (2014~2016)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6

INFOGRAPHIC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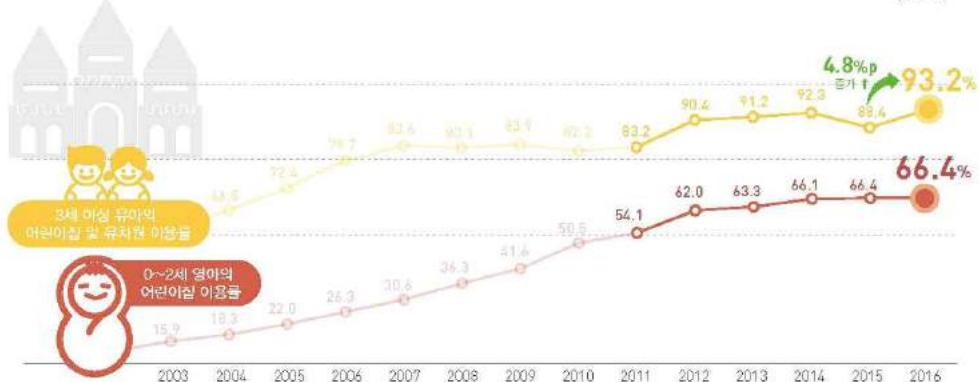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15년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4.8%p 증가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증가 추세 둔화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03~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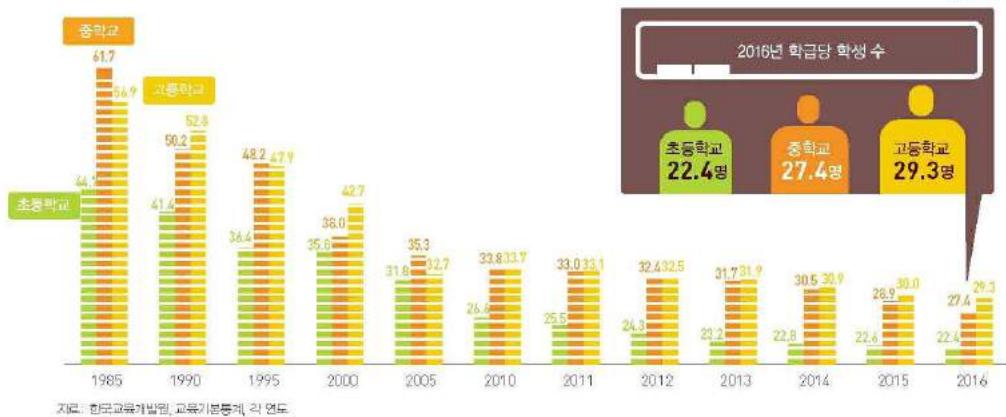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유초등통계(각 연도)

학급당 학생 수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연도별·학교별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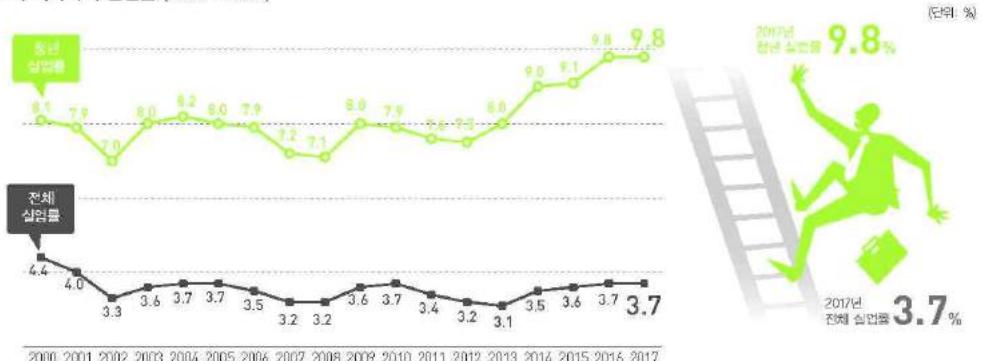
근로

INFOGRAPHICS 2017

← 청년 실업률 →

전체연령 실업률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실업률 (200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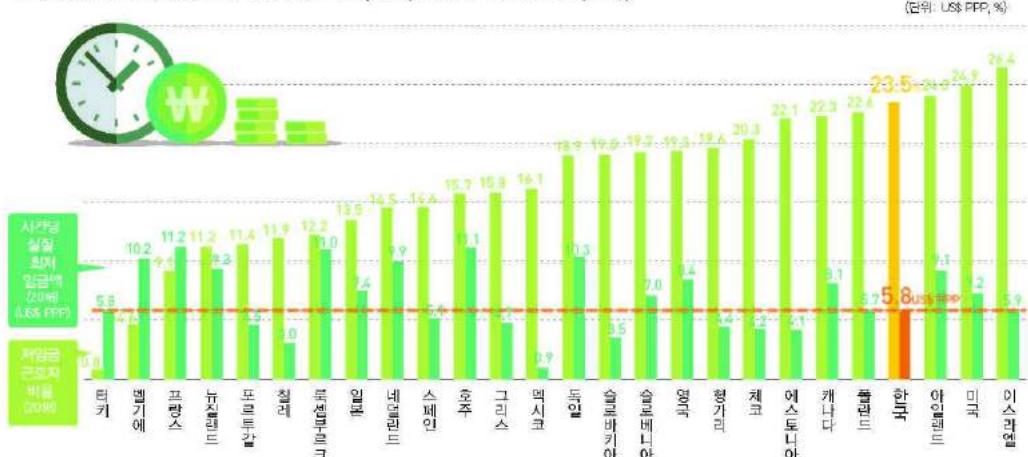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용

← 최저임금 수준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이스라엘, 미국,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

▶ OECD 주요국가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액(2016)과 저임금근로자 비율(2016)



자료: OECD, stat[지도] 다운로드 2017. 11. 9. 08:29 UTC (G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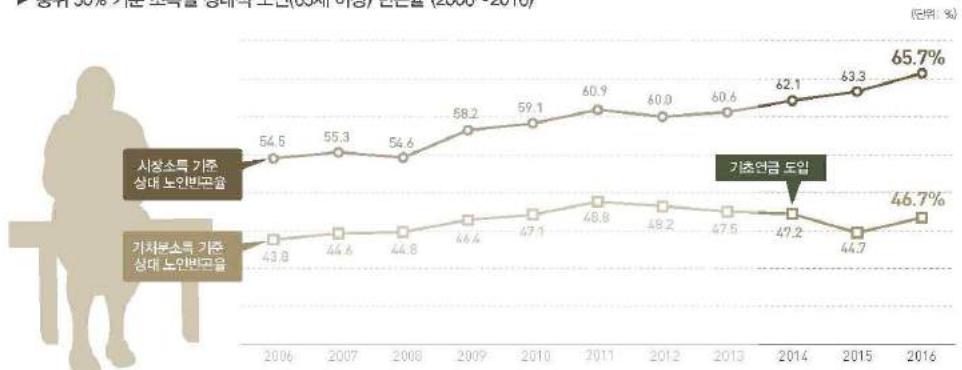
INFOGRAPHICS 2017

소득보장과 빈곤

● 노인빈곤율 ●

시장소득 기준 65세 이상 상대 노인빈곤율(중위 50%)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초분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14~2015년 감소하였으나 2016년 다시 증가

▶ 중위 50% 기준 소득별 상대적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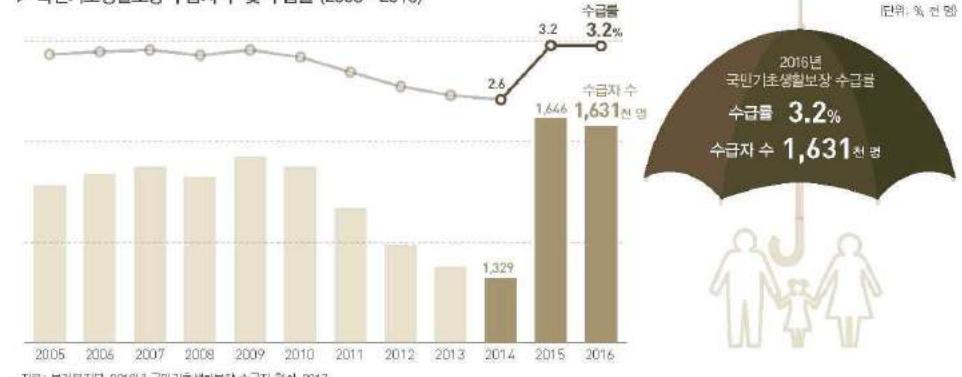


주: 농어가기구 제작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한자료, 통계청, 기계통합조사, 각 연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규모 및 수급률이 크게 증가한 후,
2016년 비슷한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5~2016)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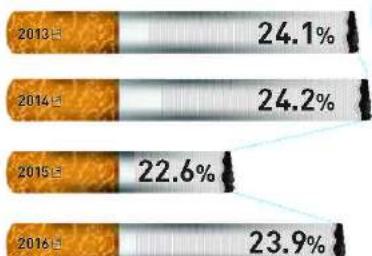
건강

INFOGRAPHICS 2017

▶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은 2015년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다시 증가, 걷기실천율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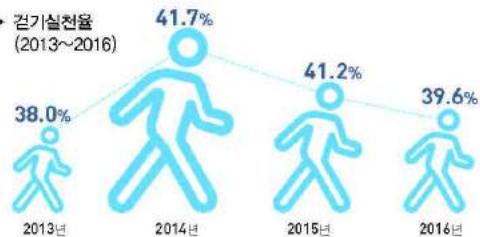
▶ 현재 흡연율 (2013~2016)



▶ 19세 이상 고위험 음주율 (2013~2016)



▶ 걷기실천율 (2013~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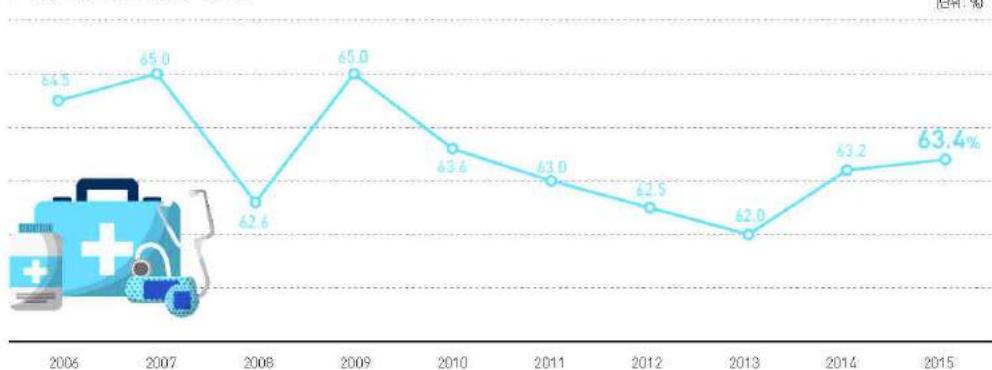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 건강보험 보장을

건강보험 적용비율은 100%(건강보험 97%, 의료급여 3%)인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 수준에 불과

▶ 건강보험보장률 (2006~2015)



주: 현금지급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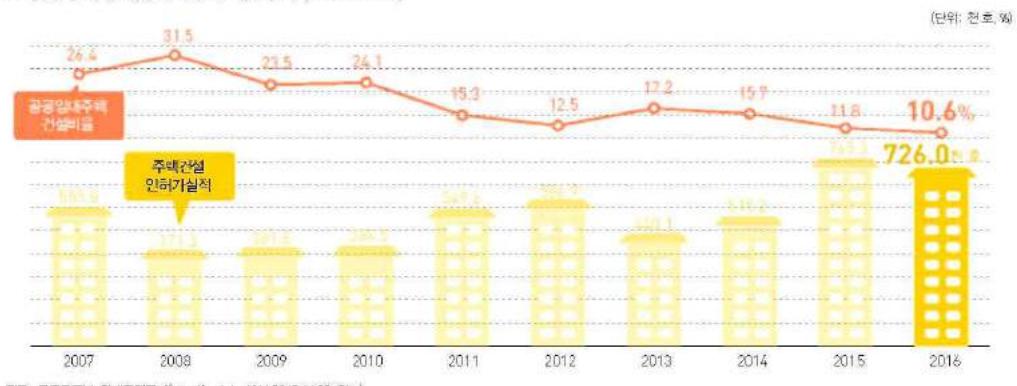
INFOGRAPHICS 2017

주거

← 공공임대주택비율 →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은 2016년에 다소 감소하였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0.6%로 가장 낮아

▶ 신규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추이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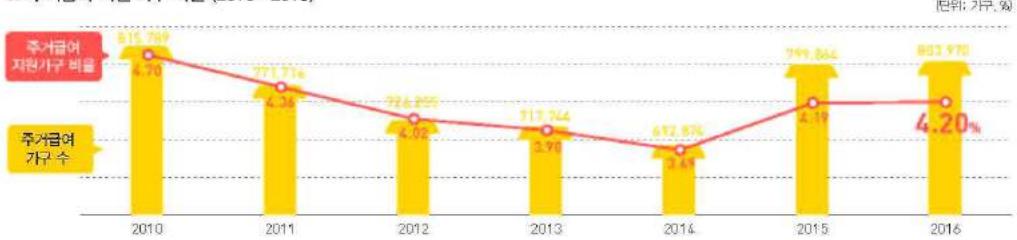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http://kosis.kr>에서 2017.11.28. 인출)

← 주거급여 지원기구 →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기구 비율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 향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거급여 지원 기구 비율 (2010~201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 11. 28. 인출);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기구 수(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기구 수(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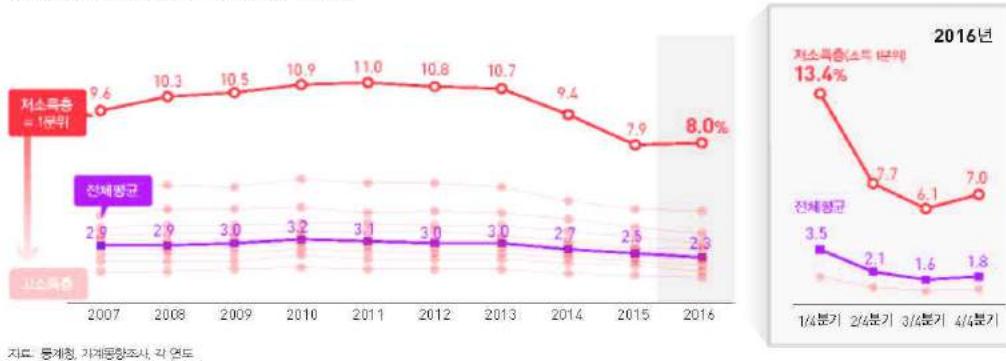
에너지

INFOGRAPHICS 2017

→ 저소득층의 연료비 비율 →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최근 감소하다가 다소 높아졌으며, 다른 계층에 비해 여전히 월등히 높고 특히 동절기인 1분기에 가장 높아 정책지원 확대 필요

▶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 (2007~2016)



→ 에너지바우처 도입 →

2015년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원규모가 다소 증가하여 저소득층 약 52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487억 원의 연료비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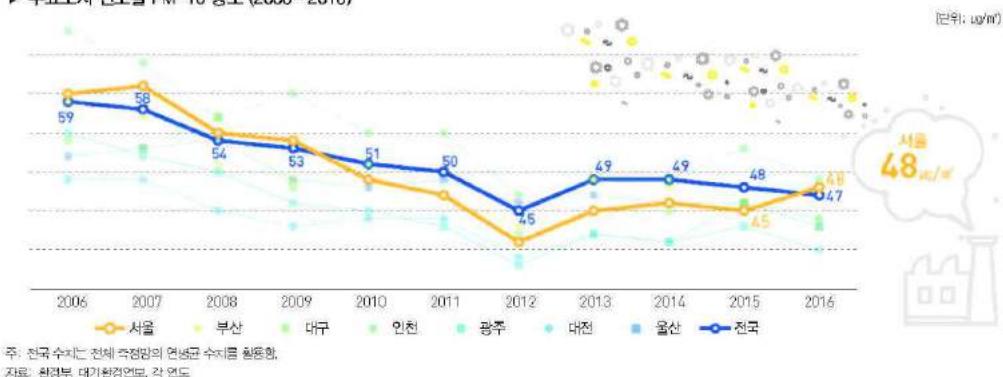
INFOGRAPHICS 2017

환경

▶ 주요 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

주요도시 연도별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최근 더욱 증가

▶ 주요도시 연도별 PM-10 농도 (2006~2016)



주: 전국 수치는 전체 주정부의 연평균 수치를 활용함.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 환경성 질환자 수 ▶

인구 1만 명당 알레르기 비염 질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

▶ 인구 1만 명당 주요 환경성질환자 수 (2004~2016)



주: 1) 1만 명당 환자수 = 환자 수 / 건강보험 연령 적용 인구 × 10,000
2) 순계 =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계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수(내부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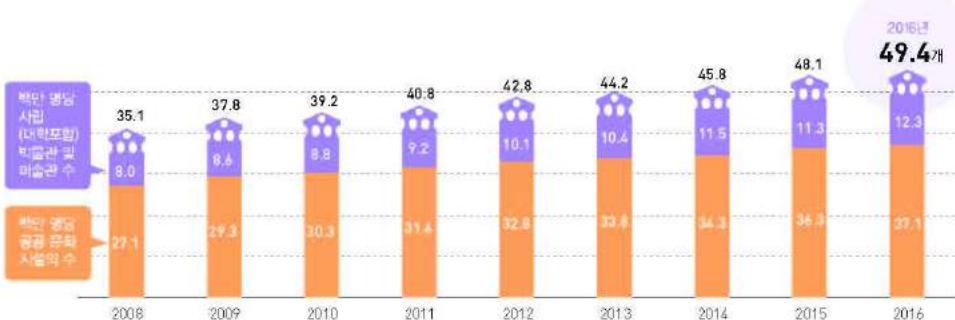
INFOGRAPHICS 2017

→ 인구 100만명 당 문화시설의 수 →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2008년 35.1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49.4개까지 증가
문화시설의 약 75%는 공공 문화시설, 25%는 사립(대학포함) 박물관 및 미술관

▶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2008~2016)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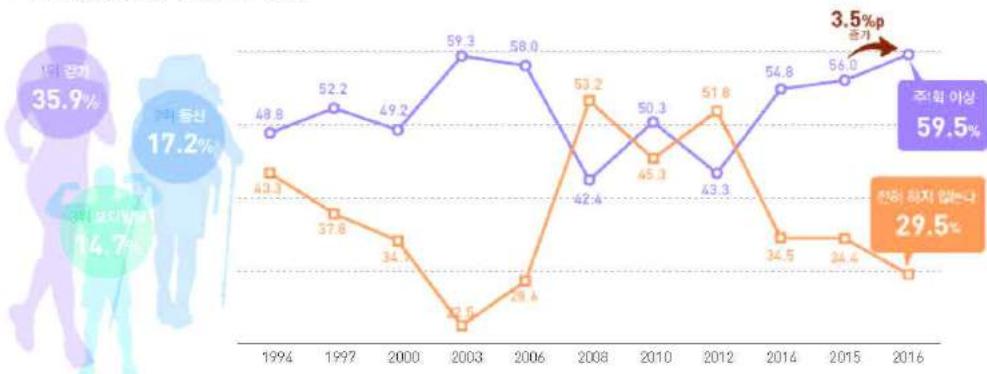
주: 박물관과 미술관은 공공, 사립, 대학으로 구분되어 있음. 사립과 대학을 제외하면 공공문화기관시설에 대한 수치임.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4년부터 데이터가 있는 문화시설은 계화하고 산출하였음. 또한 소수점의 문제로 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동향, 각 연도

→ 생활체육 참여율 →

2016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59.5%로 2015년 56.0%에 비해 3.5%p 증가한 반면,
운동을 전혀하지 않는 사람은 약 30% 수준으로 감소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35.9%), 등산(17.2%), 보디빌딩(14.7%)

▶ 연도별 생활체육 참여율 (1994~2016)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각 연도

INFOGRAPHICS 2017

사회재정

●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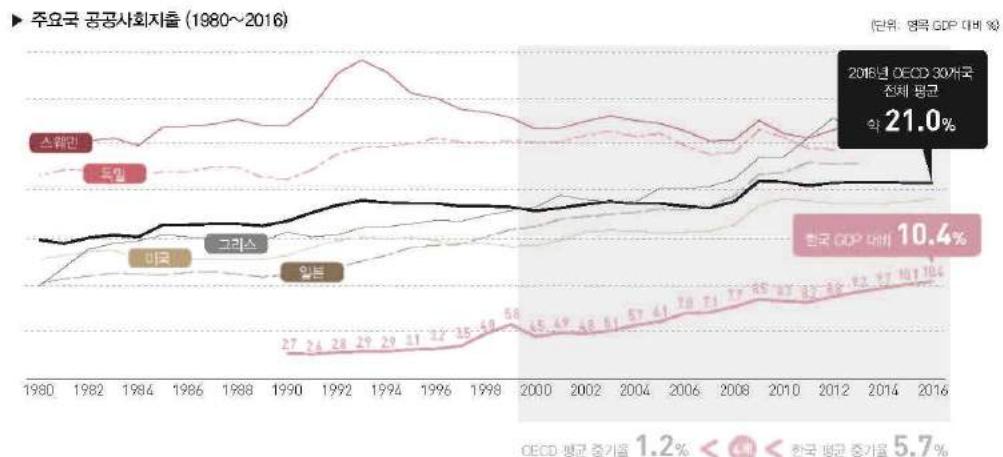
2017년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은 129.5조 원(사회복지 119.1조 원 & 보건 10.4조 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2.3%를 차지하며, 201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6.9%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4.6%)보다 빠르게 증가



주: 2013년 추경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 연도

● OECD SOCI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GDP 대비 9.3%(20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OECD 전체 평균(GDP 대비 21.1%)의 44%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 5.7%로 OECD 평균 증가율(약 1.2%)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증가



주: OECD SOCI의 각국 자료는 1980~2016년까지의 자료일반, 일본은 2013년까지, 한국은 1990년 이후 자료임.
자료: OECD 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자료 다운로드 2016.10.24. 11:26 UTC(GMT))

붙임3

2017년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현황(161개)

분야명	세부정책영역	대표지표	
1. 가족 (15)	다양한 가족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가족과 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가족 갈등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조이혼율	
	가족지원서비스	의사상자 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가사간병방문 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 아동 · 노인 · 장애인 (35)	아동 · 노인 · 장애인 (11)	아동 건강 발달 아동안전 아동빈곤 아동의 사회적 보호 아동 복지 지출	아동 수면시간, 아동 인터넷 등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아동 자살률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아동 빈곤율 나홀로 아동 수, 요보호 아동 수, 국내외 입양아동 수 아동·가족의 공공사회 복지지출
	장애인 (16)	노인 건강수준 및 건강관리 노인 의료 이용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인구 및 생활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보육 · 교육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소득보장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의 학대 경험률 노인 진료비,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 장기요양기관 수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장애인 복지시설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건수 및 지급액, 장애인 교육수준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교육의 질 교육기회보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학교급별 취학률, 학급당 학생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고등 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한부모 가족 고교생 학비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고용 고용안정성 일자리의 질 근로빈곤 자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실업급여 수급자 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총 근로시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율,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율, 사회보험 가입률, 산업재해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시간급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자활사업 대상자 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차상위 자활수급자 수

분야명	세부정책영역	대표지표
5. 소득보장과 빈곤 (10)	최저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및 수급률,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노인 빈곤율
	불평등	소득5분위배율, 지니계수
	노후소득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별 비율, 국민연금 평균지급액
6. 건강 (17)	건강수준	기대수명(평균수명), 조사망률, 저체중아 발생률, 자살률, 10대 다빈도 상병
	건강관리	현재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의료이용	평균재원일수, 1일 외래환자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의료자원	의료보장 적용인구, 의사수, 병상수, GDP 대비 경상의료비
7. 주거 (12)	주거의 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 수,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주거의 안정성	인구 천인 당 주택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노숙인 수
	주거비 부담 가능성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용자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8. 에너지 (10)	에너지 사용 유형	가전기기 보급률, 난방시설별 가구분포, 도시가스 보급률, 연탄사용 가구 현황
	에너지 소비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에너지 복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보급사업 지원 가구 수, 에너지 가격할인 사업 지원 가구 수, 연료비 지원 사업 지원 가구 수
9. 환경 (8)	환경의 질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주요 대도시 소음도
	환경관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환경 보건	환경성질환자 수
10. 문화 (15)	문화 향유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연간 독서량
	문화 접근성(인프라)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문화 참여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 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 복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GDP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11. 사회재정 (8)	재원배분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분야 보조사업 비중
	사회보장 지출구조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공적연금수지, 고용·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국제비교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 비중